

투데이 칼럼

을 추석 너넨해 지는 뜻있는 명절 어떨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표현하는 말로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현은 없을 듯싶다.

추석은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그 풍습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고유한 명절이다.

추석의 유래는 신라 3대 유리왕 때 도읍 안의 부녀자를 두 패로 나누어 왕네가 각기 거느리고 음력 7월 보름에서 8월 한가위 날까지 한 달 동안 두레 삼기를 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날 심사를 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한턱을 내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놀았던 유래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었다. 당시 명칭은 가배(嘉俳)라 하였고,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추석(秋夕)이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농경시대를 살아오면서 한해의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 가장 먼저 조상님께 햅쌀로 빚은 떡(송편)과 과일을 차려놓고

먼저 예(禮)를 올린 다음 하늘(자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음식을 나누며 가무(歌舞)와 함께 각종 놀이가 곁들여 지는 농경사회 풍습이, 압축 성장의 혜택으로 불과 몇 년 사이 스마트 폰 속의 화면으로 명절 풍습을 검색하고 신기해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정말 상진벽해(桑田碧海)했다.

그렇더라도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이맘때가 오면 마음이 넉넉해 지는 것은 인지사정일 것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날 보태다. 추석이면 차례상에 올릴 제수품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객지에 나간 자녀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

형제나 이웃들과 정을 나눈다.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설레고 바쁘게 추석이다.

“중추가절”이라 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겼다. 정겨운 추석 풍경이 점차 변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벌써부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아웃소싱’ 시키고, 전화 한 통으로 차례상을 세트로 주문시킨다.

부모님들에게는 용돈 몇십 만원 송금해드리고 자신은 해외로 ‘추석 이민’ 여행을 떠난다. 변질한 추석 세태를 보니 안타깝다.

추석인데도 귀찮히는 사람이 준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달픈 도시직장 생활이 힘들어 며칠 쉼 쉬고 싶을 수도 있다.

귀향하면 “직장이 무엇이나, 결혼은 하였느냐” 등 사사로운 질문 때

문에 고향 가기 싫다는 사람도 많다.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은 일년 중 가장 바쁘나 일손 부족으로 애로가 많다.

추석 대목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일손이 필요하다. 농가마다 평소보다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여기저기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초비상이 걸린다.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 20~30대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간 지는 오래이며 농촌 고령화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농촌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지금 농촌과 농업의 핵심인력은 여성인력이나 다문화 인력이다. 제3국 인력을 무작정 도입할 수도 없다. 안정적인 이직도 않고 체계적 관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 추석 명절엔 조상의 성묘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문안과 안부를 돌리며 친구들과 덕담을 나누며 막걸리 한잔할 수 있는 올 추석, 보름달 같은 푸짐한 볼우한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넉넉해 지는 뜻있는 명절 어떨까 싶다.



이복수

지방부 부인주재 국장

독자제언

우리곁에 탈북민 3만명 희망찬 통일의 역군으로

북한 김정정은 권의 연이은 핵 실험, 미사일발사와 탈북민 테러지시 등으로 남북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탈북민들은 더욱 불안감과 초조한 생활에 안정적 정착에 힘들이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들을 보호하는 한사람으로써 걱정이 먼저 앞선다.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자유대한을 찾은 환00(45세)는 탈북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오랜시간 모자 시간 생이별을 해야하는 아픔도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람으로 새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그들을 보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졌다.

경찰은 이러한 위기가정과 함께하는 탈북민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주변에 탈북민 그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더 늦기전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어려운 탈북민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일의 가교이자, 역군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학교 폭력, 교실 넘어 사이버공간까지 ‘심각’

‘키톡감옥’, ‘떼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떼카는 떼로 카가 오목을 보낸다는 뜻으로,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을 퍼붓는 행위다.

‘키톡감옥’은 피해학생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모두 특정인을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이버폭력 행위들이다.

이런 폭력행위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모바일 메신저와 SNS 활성화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행해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집단으로 이루어지거나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 탓에 피해와 후유증이 크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에 비해 걸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끔찍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현실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져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방법만 바뀌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은 과거 명예훼손이 주였다면 최근엔 카카오톡이나 SNS를 이용한 따돌림, 신상노출, 합성 사진 전송, 아이도 도용, 저격글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윤리교육,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사이버폭력을 입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학교상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해야한다.

김정애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당한 일인가

지금 한가위라서 다들 들뜬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문 지면을 보면 눈이 어지럽고 TV 앞에서는 귀가 시끄러울 정도이다. 전북의 고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일 테다. 삼성의 새만금 MOU는 정치적인 쇼였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고, 누리예산 문제도 예상했던 대로라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으로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 죽이기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정말이지 여기저기 답답한 일의 연속이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 대상 지역이 무조건 안 장수와 입실 순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시 생각나는 게 있다. 우리 전북 지역의 고된 발전이 아니다. 지역마다 발전의 기회가 균등해야겠는데, 통폐합에도 발전의 기회가 많아야하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같은 지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분명히 그 때문이다. 그 오래된 현실 때문에 통폐합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므로 수없이 반복된 당부라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런데 그 낙후된 중에서도 도내의 통부권은 더욱 낙후돼 있다. 그런 세월이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째이다. 그런 까닭에 전북의 동과 서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통부권에도 발전의 기회를 많아야겠다. 그동안 이같은 주문을 여러 번 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통부권 발전을 위해 일해왔노라고 말할 이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부할 것만은 아니다. 통부권에 대한 발전 평가는 통부권의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교통 인프라며 기업 유치며 무주군과 진안군과 장수군을 위해서 아쉬운 게 하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교육 혜택의 질마저 떨어지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통부권은 인구 감소로 해마다 왜소화 현상이 이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일실군과 순창군도 마찬가지이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은 담치 같다.

도내에 관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도내에 관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예나 지금이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까닭이다. 시간제 비정규직만 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고용 환경이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는 불만이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세월이다. 현실과 희망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추석을 맞아 젊은이들은 이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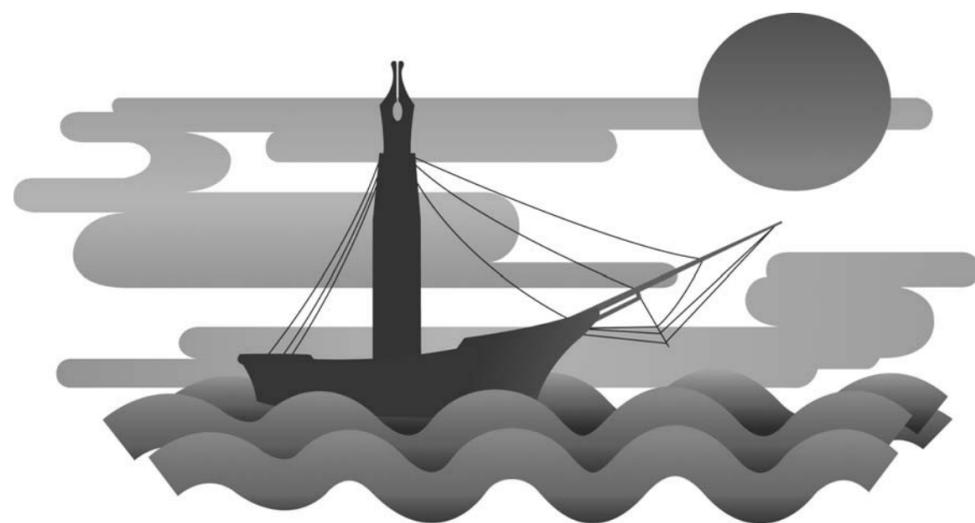
전북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 취업자들도 바라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정규직 일자리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 일자리와 고용안정이 결과적으로 식언이 되고 있다.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닐 터인데 피부에 와 닿는 실감이 없으니 문제이다.

얼마 전에 도내 근로자의 39%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은 40%를 훌쩍 넘어섰으리라는 짐작이다. 고용 구조의 현실이 이런데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찮다는 식의 발표는 합당치 않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생색 수준의 일자리만 내놓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런데 안타깝한 것은 공무원 사회만이 아니다. 건설업종이며 서비스업종 외에도 도내의 거의 모든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줄고 있는 관에 고용의 질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호소는 그래서 나오고 있다. 현실이 이처럼 곤란한 수준이라면 전북도와 각 시군지자체는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귀성하는 젊은이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헤아려보아야 할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